****

**선교 활동 보고**

**라스베가스 거리에서 빛나는 친절**

숀 던컨에게는 생일 카드를 받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일들이 큰 의미를 갖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 사는 퇴역 군인인 숀에게 몇 년 동안 우편함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말은 그에게는 몇 년동안 집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미시간주 출신으로 가족과 별 연결이 없던 숀은 노숙 생활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한 정신 건강 문제로 수년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과거 청소년 주일학교에서 만난 목사님을 페이스북에서 만났고,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숀의 인생은 [카리다드 가든스](https://lasvegassun.com/news/2019/nov/11/caridad-downtown-community-garden-homeless-vets/)를 소개 받으면서 바뀌었습니다. 카리다드 가든스는 라스베가스에 기반을 둔 비영리 단체로 노숙자를 돕고, 인간답게 살게 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카리다드 가든스는 직업 기술 훈련과 정신, 감정, 신체적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단체의 설립자인 메리데스 스프릭스는 전직 청소년 목사이며, 직업과 집을 잃은 뒤 한 때 노숙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노숙자가 될 수 있다면,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에 대해 나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진정으로 느꼈지만, 대부분 그 일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 입니다. 아마도 지금도 그러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느끼겠지요."

"메리데스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라고 숀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성경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성경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친절과 존중을 대했습니다."

숀은 카리다드 가든스가 자신이 참여하고 싶은 일을 보여주고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고 정신 건강 문제, 노숙자 문제 등 공통의 문제를 공유하면서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리다드 가든스](https://www.facebook.com/CaridadLV/)의 사명은 부분적으로 [장로교 인적 자원 개발 위원회(SDOP)](https://www.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sdop/)의 보조금의 지원을 받습니다. SDOP의 보조금은 또한 미국장로교 교인들이 정성껏 모은 [위대한 나눔의 실천 특별 헌금](https://www.presbyterianmission.org/donate/og300000/)을 통해 조성됩니다. 이 헌금은 또한 [미국장로교 기아 프로그램](https://www.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compassion-peace-justice/hunger/)과 [장로교 재난 지원 프로그램](https://pda.pcusa.org/situation/blue-tshirts/)의 사역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배경으로 하는 스프릭스는 예수님이라면 어떤 일을 하셨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집없는 자들을 먹이라고 하셨지만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래된 땅콩버터와 젤리 샌드위치를 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으라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함께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라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특별 헌금에 함께해주시면, 개인과 공동체를 치유하는 동시에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이며, 이는 정의와 희망을 구현하는 기회가 됩니다."['인적 자원 개발'](https://www.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sdop/) 의 코디네이터인 알론조 존슨 목사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나눔의 실천 특별 헌금'이 목표로 하는 바입니다.

정성껏 헌금을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의와 희망을 구현하는 데 동참해 주세요. 우리가 조금씩 보태면, 큰 힘이 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당신께서는 저희를 지역사회 안으로 부르시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정의와 희망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길을 탐색하고 찾게 하소서. 당신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모든 피조물에게 배푸시는 깊이 있는 친절을 닮게 하소서. 저희의 헌금을 축복해주시고 이 헌금이 저희 이웃들에게 변화를 가져오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